



천일야화, 비단길, 그리고 처용의 문화

The Arabian Nights, the Silk Road, and the Culture of Cheoyongga

저자 (Authors)	허혜정 Huh, Hye-jung
출처 (Source)	동서비교문학저널 (14) , 2006.06, 147-178(32 pages)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14) , 2006.06, 147-178(3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The Korean Society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3000
APA Style	허혜정 (2006). 천일야화, 비단길, 그리고 처용의 문화. 동서비교문학저널(14), 147-17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8 15: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천일야화』, 비단길, 그리고 처용의 문화

허 혜 정
(동국대)

1. 서론

현재 국제적으로 활기를 얻고 있는 비교문학 영역에서, 동아시아와 아랍권의 비교문학연구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허술하게 방치된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적/문화적 블록화 추세에 따라, 참혹한 전쟁과 문화적 분규를 통과해온 21세기의 현재적 관점에서도 보아도, 서구와 동양을 갈등의 문맥 속에 파악하고 주로 서구중심적인 초점을 구성해온 한국의 연구풍토에서 보아도, 같은 아시아이면서도 그 연계성이 깊이 짚어지지 못한 아랍과 한국과의 비교 문학 연구는, 문명의 실크로드를 타고 꽃피워온 한국문화의 형성점을 선구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려가요 『처용가』와 그 문화적 맥락을, 아랍권의 문학 및 문화전통과 연계시켜 논의해보는 본 비교 연구는, 처용의 문화가 현재 국제화의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문화의 미래적 거울이자 의미심장한 초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단지 문학만이 아니라 음악, 무용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처용가의 전승상황을 볼 때 본 논문은 문학텍스트로서의 『처용가』보다 오랜 동안 연희전통을 이뤄온 처

용의 문화에 동시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처용은 단순히 문학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오랜 문화사에서 연희전통의 중핵을 구성하며 다차원적인 텍스트로 실현되어 왔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처용가』의 신비로운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혹시 이방에서 흘러든 문화적 충격의 진앙이 남겨놓은 광범위한 여진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려가요 『처용가』와 처용의 문화를 아랍의 대표적인 민담집인 『천일야화』(千一夜話),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수피즘(Sufism)의 전통과 연계시켜 주목해보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수피즘은 8-9세기 경 발생한 이슬람의 신비전통이다.²⁾ 수피즘의 실행자는 수피(Sufi)³⁾로 알려져 있는데, 논자가 이전부터 아랍인이라 주장해왔던 처용이 혹 수피승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본 논문이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중요한 가설이다. 수피즘의 핵심적인 요소는 정신과 영혼의 체험을 통과하여 영혼의 각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신성한 사랑에 기반한 신비로운 수행을 거쳐 신 또는 영적 진실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을 추구한다. 수피즘은 근동지역의 대지신앙과 여신숭배전통, 인도의 신비전통 등 다양한 문화요소와 습합되어 있다. 이러한 수피즘의 전통이 실크로드를 타고 한국에 흘러들어왔으리라는 가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처용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을 본 논문은 짚어본

- 1)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처용가』는 향악정재(鄉樂正才)의 하나로 창제·공연되었고, 국한문의 가사로 된 『처용가』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說)에서 여기(女妓)에 의해 노래로도 불려졌다. 세종 때 윤희(尹淮)가 『처용가』의 곡조를 개찬(改撰)한 『봉황음(鳳凰吟)』의 악보가 『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봉황음』은 조선 세종 때 윤희(尹淮)가 지은 별곡체 악장이다. 『처용가』의 가사만 『봉황음』으로 바꾸고 악곡은 『처용가』의 악곡을 그대로 없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작품으로 나라와 왕가(王家)에 대한 송축가이다. 그 가사가 『세종실록』 권146에 악보와 함께 실려 있고, 나례의식(離禮儀式) 후 거행된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說)에서 『처용가』 등이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 『시용향악정재조』(時用鄉樂呈才條)에 『동동』, 『정과정』 등의 고려가요와 함께 실려 전하는 『처용가』의 가사는 언제나 ‘춤 노래’를 통해 대중들에게 1300여년간 향수되어왔다.
- 2) 8-9세기 경에 이슬람교 안에서 새로운 종교적 강조점이 개발되는데, 이는 이슬람의 비개인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전통에 대항한 반동이다. 가장 깊은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슬람교에 대해 수피즘으로 알려진 헌신적인 금욕주의와 결합된 신비주의 전통이 발생한다. (Rippin 118)
- 3) 이들은 힌두리즘과 상당히 흡사한 수행을 하며, 엄청난 영적 힘을 지닌 힌두교의 수도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

논자는 그간 『처용가』는 중국을 경유한 아랍과 한국간의 문화교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거울임은 물론 국제화 시대의 한국문학의 전망을 예견할 수 있게 해줄 대단히 미래적인 텍스트임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진정한 처용미학의 핵심에 대한 탐구는 폐쇄적인 민족민화의 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아시아문화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중세 아시아의 교역시스템, 특히 아랍문화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밑바탕에 깔고, 본인은 그간 세 가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처용가』에 대한 연구의 진행시켜왔다. 첫째는 문화적이고 배경적 차원의 연구로서 처용이라는 인물상에 대한 접근이다. ‘달’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처용관련 첫 논문(허혜정 2004)이 이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아랍의 문화기류가 『처용가』의 생산에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생성 변형된 이색적인 특질들을, 『삼국유사』의 기술물 뿐 아니라 처용과 관련된 여러 전승물들의 도움을 받아, ‘달’이라는 코드를 통해 중점적으로 규명했다. 둘째는 처용의 문화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이다.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콘텐츠』(허혜정 2006)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1300여년간 면면히 계승되어온 처용 문화에서 이미 오래 전에 국제적 문화흐름에 민감했던 우리전통의 특색과 미래문화 실현의 방법론적 통로를 찾아보았다.

처용관련 연구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본 논문은, 첫째 고려조의 처용의 문화를 비단길을 통해 흘러든 아랍문화와의 연계선상에서 짚어보고, 둘째는 『처용가』의 문학적 메시지를 『천일야화』의 모티프와 거칠게나마 비교해봄으로써, 그간 지적되지 않은 『처용가』의 몇 가지 문학/문화적 특질을 검출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우리의 문학사에서 『처용가』 이전에 처용같은 이색적인 인물상, 모티프의 핵이 되는 성에 대한 남성의 독백이 시작된 적은 없었다. 『처용가』의 가장 두드러진 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성적인 주제는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인간적인 영웅인 처용과 마신적인 상징으로서의 역신, 성적 일탈과 배신, 삼각관계의 설정은 가장 중요한 이념

이고 주제이며, 오늘날의 현대문화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패러디되는 모티프인 것이다. 그러한 모티프의 발생은 혹시 실크로드를 타고 흘러든 문화적 충격의 진앙이 남겨놓은 광범위한 여진은 아닐까? 하는 의문에 『천일야화』의 전형체인 『천개의 이야기』는 상당히 깊은 암시를 준다고 판단된다. 그간 국문학이라는 연구영역의 한계 속에 갇혀 어쩔 수 없는 공백으로 남겨놓아야만 했던 처용가의 비밀은, 본 연구를 통해 그간 간과되어왔던 몇 가지 표현적 실체를 드러내줄 것이며, 『처용가』의 미학적 뇌관을 드러내줄 몇 가지 암시적인 문맥을 마련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2. 비단길의 가인, 처용

주지하다시피 비단길의 명칭은 BC 1세기 경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로마인이 비단을 알게 된 기원전 1세기부터 극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비단길은 향료, 종이, 도자기, 보석 등을 교역했던 통상로였을 뿐 아니라, 동서양의 학문, 종교, 기술이 상호 교류되던 통로이기도 했다.⁴⁾ 실제로 처용가가 생성된 신라는 물론 고려시대의 문화가 폭넓게 중국을 경유하여 아랍문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 어려운 추론이 아님을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은 입증해주고 있다. 그간의 연구에 의해 신라불교는 아랍과의 문화교류에 상당히 관여되어있음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며,⁵⁾ 고려문화에도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서역문화의

4) 『한서』 <서역전>의 기록에 의하면 음유시인이나 곡예사들도 사절단과 동행했다. 아랍인이 동서양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해상무역을 독점하던 시대는 몽고제국의 발흥으로 종말을 고한다. 페르시아만, 인도양, 그리고 중국해 사이의 해상로의 자료는 아랍 지리학자들과 여행 전문담으로 폭넓게 남아있다. 둔황의 고문서는 중국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방대하다. 거기에는 중국역사에 대한 방대한 내용, 불교는 물론 역사, 지리, 고전, 문학 등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이 모든 것은 11세기 전의 것이다.(펠리오 170)

5) 가령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세 꾸러미의 유향(乳香)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하드라마우트나 반도 북부의 팔레스타인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 유리공예품의 하나인 칠곡군 송림사 전탑의 사리병은 그 표면에 사산계의 환문(環紋) 장식이 있어 페르시아에서 들어왔거나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유품임

영향이 상당히 깊게 침투해있음은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해주고 있다.⁶⁾ 『처용가』 발생기의 전후맥락을 보면 처용의 상징을 생산해낸 것은 바로, 낮섬이라는 문화적 충격이라는 점도, 이러한 국제교류 상황을 처용문화와 연결시켜보게 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우선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한 기술물을 보자.

처용회는 신라의 헝강왕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인이 바다에서 나와 개운포에 나타났다가 왕도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됨이 기결하고 비범하여 노래와 춤추기를 좋아하였다. 익계의 시에 “흰 이 붉은 입술로 달밤에 노래하고, 제비 어깨 붉은 소매로 봄 바람에 춤추네” 한 것이 이것이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검은 배옷에 사모를 쓰고 춤추게 하였는데, 그 뒤에 오방처용이 있게 되었다. 세종이 그 곡을 참작하여 가사를 개찬하여 봉황음이라 이름하고, 마침내 묘정의 정악으로 삼았으며, 세조가 그 제를 늘여 크게 악을 합주하게 하였다. 처음에 승도가 불공하는 것을 모방하여 기생들이 영산회상불보살을 제창하고, 외정에서 돌아 들어오면 영인들이 각각 악기를 잡는데, 쌍학인 다섯, 처용의 가면 10명이 모두 따라가면서 느리게 세 번 노래하고, 자리에 들어가 소리를 점점 둔구다가 큰 북을 두드리고 영인과 기생이 한참동안 몸을 흔들며 발을 움직이다가 멈추면 이 때에 연화대놀이를 한다. 먼저 향산과 지당을 마련하고 주위에 한 길이 넘는 높이의 채화를 꽂는다. 또 좌우에 그림을 그린 등롱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다섯 색으로 만든 술이 어른거리며, 지당 앞 동쪽과 서쪽에 큰 연꽃 받침을 놓는데 소기가 그 속에 들어있다. 보허자를 주악하면 쌍학이 곡조에 따라 빙글빙글 춤추면서 연꽃 받침을 쪼면 두 소기가 그 꽃받침을 헤치고 나와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서로 등지기도 하며 죽도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를 동동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쌍학은 물러가고 처용이 들어온다. 처음에 만기를 연주하면 처용이 열을 지어 서서 때때로 소매를 당기어 춤을 추고, 다음에 중기를 연주하면 처용 다섯 사람이 각각 오방으로 나누어 서서 소매를 떨치고 춤을 추며, 그 다음에 축기를 연주하는데, 신방곡에 따라 너울너울 어지러이 춤을 추고,

이 정수일의 연구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8~9세기에 아랍-무슬림들이 이미 신라 땅에 나타났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이토록 사실적이고도 생동적인 당대의 문화적 흔적들은, 신라와 아랍-이슬람제국 간의 직접적 교역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 6) 정수일 교수의 광범위한 조사에 의하면, 그간 한반도의 여러 곳에서 신라시대에 유입된 아랍-이슬람제국을 비롯한 서역 유물이 적지 않게 발굴되었다. 직접적인 교역을 시사해 주는 사례로는 고려 초에 대식 상인들이 고려에 집단적으로 내왕한 사실을 들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초기인 1024년, 1025년, 1037년에 대식 상인들이 100여 명씩 수은과 용치(龍齒) 등의 교역품을 가지고 수도 개경에 찾아와서 방물을 바치고 후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은 대식 상인들이 사전에 고려와의 무역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신라시대에 이미 여러 형태의 교역이 선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끝으로 복전을 연주하면 처용이 물리가 자리에 열지어선다. 이 때에 기생 한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창하면, 여러 사람이 따라서 화창하고, 또 관음찬을 세 번 창하면서 빙돌아 나선다. 매양 선달 그믐날 밤이면 창경궁과 창덕궁 양 궁전 뜰로 나뉘어 들어간다. 창경궁에서는 기악을 쓰고, 창덕궁에서는 가동을 쓴다. 새벽에 이르도록 주악하고 영인과 기녀에게 각각 포물을 하사하여 사귀를 물리나게 한다. (『대동야승』 권1 『용제총화』)

위의 기술물은 『처용가』가 오방처용, 봉황음, 관음찬, 연화대놀이 등의 놀이와 춤, 주악 등으로 카니발화된 맥락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처용의 노래와 춤은 그 출현시부터 문화적 고양을 자극하였고, 아무도 잠재울 수 없었던 처용 열풍은 일정한 문화전승을 이루며, 고려-조선조는 물론 현재까지도 폭발적인 패러디 작품으로 생산되었다. 처용의 문화는, 대중적 전파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학사 속의 그 어느 문학텍스트보다 월등하며, 현대문화에 던지는 문화적 파장과 대중성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도대체 이렇게 이러한 처용열풍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중요한 점은 처용의 문화가 우선 기이한 인물을 맞아들이는 대중의 열광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한 지역의 문화적 기억에 새로운 요소가 첨가될 경우, 그 낯섬을 새로운 놀이로 전유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발생하며, 그러한 낯섬을 나름대로 토착적인 문맥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용의 문화는 역동적으로 구성된다. 으레 이 지역의 문화적 기억이 보존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첨가될 경우, 그 정체성과 정착의 과정은 우리의 깊은 질문거리가 된다. 처용이라는 낯선 존재의 장엄한 출현을 대중들은 용이라는 익숙한 토착적 상징으로 번역하였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마시고, 방랑벽을 지닌 처용의 두드러진 개성은 세인들의 호기심 거리가 되었다. 처용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과 그의 춤과 노래에서 비롯된 처용 카니발은, 당대의 문화시스템이 허용하는 모든 다양한 양식으로 실현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아, 처용이 집중적으로 공연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궁중과 민간에서 처용회 등을 즐기던 고려조 이후다. 이는 “전대부터 전래된 익숙한 소재인 점, 내용이 벽사진경인 점, 놀이로서 적합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궁중에서 『처용가』를 즐겼음은 『고려사』에 보이는데, 주로 연향과 굿에서 사용된 것 같다. 민간에서 『처용가』가 널리

퍼져 있음은 개인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명준 138).”

문화와 문제는 이렇게 처용을 대중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게 한 매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논자는 오늘날 국제화된 문화기류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방에서 흘러든 새로운 문물에 열광하듯, 처용문화를 촉발시킨 강력한 매력은 처용의 이방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당대의 이방문화라면 당연히 중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주목해볼 것은 중국과 아랍문화간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중국을 경유한 한국과 아랍간의 오랜 교류사이다. 비록 『천일야화』와 『처용가』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밝혀주는 문헌은 찾기 어려우나, 아랍문화를 집대성한 고전인 『천일야화』의 생성지인 인도-페르시아-아랍-중앙아시아-중국의 문학적 동선을 그려줄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한 예로 우리는 ‘음악’을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이다.⁷⁾ 『천일야화』의 생성지인 아랍권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결코 먼 곳이 아니었다. 가령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세 꾸러미의 유향(乳香)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하드라무트나 반도 북부의 팔레스타인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 유리공예품의 하나인 칠곡군 송림사 전탑의 사리병은 그 표면에 사산계의 환문(環紋) 장식에 있어 페르시아에서 들어왔거나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유품임이 정수일의 연구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처용가』가 생성되던 8, 9세기에 아랍-무슬림들이 이미 신라 땅에 나타났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이토록 사실적이고도 생동적인 당대의 문화적 흔적들은, 신라와 아랍-이슬람제국 간의 직접적 교역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라보다 국제무역이 더욱 활기를 띠었던 고려기의 문화는 한층 더 아랍권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고려 처용 문화의 형성은 주로 중국을 경유한 실크로드의 음악교류를 통해 형

7) 일례로 초기의 인도 음악체계는 압테라만 2세의 재위 기간에 시리아인, 바그다드의 가수이자 시인였던 지르얍을 거쳐 전파되었으며, 몇몇 노래에서 보이듯 화성에 있어서의 기교적 측면, 반복적이고 장식적인 스타일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쿠로 두르세의 시기리아). 이슬람의 노래와 음악은 (중국 이란에서 유래된) “구전 음계”와 “리듬”이라는 새로운 음악 계통을 도입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판당고 및 그것에 관련된 수많은 변주에는 이러한 영향이 표현되어 있으며, 빈번한 멜로디의 활용은 플라멩코와 현재의 북아프리카 노래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 있다.(Molina & Mairena 25-34)

성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는 이미 신라기부터 비롯된 광범위한 서역/중앙아시아와의 교류사, 특히 고려 가요 『처용가』 형성의 배경이 되는 서역과의 음악교류사를 통해서 역력히 실증이 되는 사항이다. 우리는 한국문화의 상상력의 용광로로 처용을 탄생시킨 요소가,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이국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는 역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서역-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 경계가 실크로드로 묶여있던 국제문화 속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려는 글로벌한 기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려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 처용의 카니발 문화는 이질적인 문화를 토착화시켜가며 수정, 재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중세기간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아랍문화는 중국을 경유해 신라-고려로 흘러들었는데, 당시의 글로벌한 기류와 예술의 국제적인 교류상황은 처용가 형성시기의 발해문화에서도 확인된다. 8)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교류상황은 고려조의 『처용가』나 처용 문화의 형성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전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려조에 이르러 처용의 문화가 아랍문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우리는 고려가요가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송사와 원곡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송사는 만당시대에 시작되며, 흔히 서역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고전문학 진영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고려조에 크게 발흥했던

8) 문헌기록에 의하면 발해에는 소리와 타령 뿐 아니라, 「릉절」, 「부수」, 「팔선」, 등 무용으로 연주된 악곡도 널리 보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민족악기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형태가 다양한 악기와 려율(呂律)이 부동한 악곡이 많이 창작되었기 때문에 20여종의 관현악을 사용하는 연주집단이 있었고, 조선조시기에 음악과 무용을 관할하던 장악원과 비슷한 역할을 논 「교방」이 발해의 연주, 가창, 가무예술가들을 이끌어 창작, 출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해의 음악이 매우 발전하였기 때문에 악기를 수출하기도 하고 린근 나라들과의 음악교류도 빈번하였다. 814년 4월에는 악기와 함께 악곡 2부를 당나라에 보냈다.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발해사람들의 공연은 그 나라사람들의 흥모와 절찬을 자아내었다. 일례로 794년 12월에 5천명의 일본사람들 앞에서 한 발해의 공연을 들 수 있다. (속 일본기, 권17) 발해예술인들의 공연을 감상한 일본왕과 귀족들은 깊이 감탄되어 저들의 암악가를 발해에 보내오 높은 수준을 보여준 음악을 배워오라고 하였다. . . . 우수한 악곡과 무용은 당과 일본에 전파되어 발해 예술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릉절」은 「고려려」, 「애기녀」로 불리우면서 일본들이 오랫동안 연주하여 왔으며 「답추」라는 가무도 일본에 알려졌다. (허룡구 209-211)

속요 및 그것의 예술적 실현은, 중국-아랍-몽고의 영향 아래 탄생한 ‘원곡’⁹⁾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의 『처용가』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음악은 서역과 긴밀한 문화교류 아래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당 시기 때 외래음악과 한민족 고유의 민간음악이 서로 융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음악인 연악(燕樂)이라는 것이 있다. 연악의 계보가 보편화되어 유행할 때, 민간의 예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소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곡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의 기원으로, “돈황 석실에서 당인 사본 곡자사가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사는 대부분이 당대 민간사이다. 이러한 민간사는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짧은 영사(令詞)와 지수가 좀 많은 中調가 있을 뿐 아니라 1백자 이상의 장조長調도 있다. . . . 그 중 특히 애정을 묘사한 작품은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새롭고 생동적이다. (빙심 178)(밑줄 필자)

고려는 송·원·명으로부터 대성아악(예종 11년, 1116)·석전제악(충렬왕 25년, 1299)·명의 아악(공민왕 19년, 1370)과 악기를 꾸준히 수입함으로써 음악 문화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렇게 고려시대에도 대외적으로 중국의 음악을, 대내적으로 전조의 음악을 수용함으로써 당대 음악의 다양성과 음악적 자산을 확장시켰던 것이다. 조선초기에도 명·몽으로부터 음악과 악기 수입은 계속되었다. . . .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고려가 그랬던 것처럼 밖으로는 명·몽 등의 음악을 받아들이고, 안으로는 고려의 악곡을 적극 수용 활용함으로써 음악 정비를 도모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대 음악의 수용은 당대 음악적 활용과 음악적 자산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 조선시

-
- 9) 원나라(1271-1368)의 회곡은 음악에 시적인 드라마를 덧붙인 것으로 Yuan Zaju,라고 부른다. 이것이 무르익은 시기에는 극장공연물의 형식으로 상류사회에 유행하였는데, 이 시기 다양하고 특이한 예술적 창조가 이루어졌다. 원나라 문학의 가장 주목할만한 특색으로, 이것은 초창기에 현재 빼이징인 다두Dadu 에 중심으로 두고 북중국까지 드넓게 퍼져나갔다. 남쪽의 송나라(1127-1279)가 원나라에 자리를 내준 이후, Zaju 는 국가적 드라마가 되었다. 그것은 무수히 쓰여진 회곡과 함께 유통되었다. 이 원곡은 예술과 사회 속에서 전체 속에서 개발된 것이다. 예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보면 내면적 구조와 외면적 표현은 원나라에 수년간 성숙하다가 갑작스레 개화하였다. 이 기간은 역설적으로 전통적 시기, 즉 당나라(618-907)와 송나라(960-1279) 의 시기가 퇴보하던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원곡은 서곡과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곡은 꽤 짧지만, 노래는 중요한 원곡의 표현방식이다. 각각의 장은 중국의 고대 음악과 노래의 모드를 드러내지만, 주도적인 남성 혹은 여성 캐릭터가 부르는 노래는, Canjun play의 영향을 받았다. 원곡의 음송 recitation은 즉흥적이고 우스운 몸짓과 말들로 가득차 있다. 이것은 드라마와 함께 하는 노래로 무르익었다.

대뿐만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음악 문화의 전통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고려속요의 수용과 전승도 음악 전통의 관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악장가사』 소재 고려속요도 효용성 차원에서 수록·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밑줄 필자)

위의 기술에서 보이듯이 서역과 중국의 음악적 관계는 대단히 긴밀했으며, 음악을 기반으로 한 처용의 문화는 그러한 아랍문화와 습합된 중국의 영향 아래 탄생한다. 이렇게 『처용가』 뿐 아니라 ‘처용’의 문화는 그 발생기부터 철저히 국제적인 감각을 통과하여 통찰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경유한 아랍과의 연결선은 아랍의 문화를 폭넓게 담고 있는 『천일야화』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다시 짚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처용가』의 에로틱한 모티프의 모상(模像)

『처용가』는 내용적 측면을 통해 보아도, 간통이라는 일탈의 주제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급진적이다. 본인은 그것이 혹시 이것이 성적으로 자유로운 아랍권의 『천일야화』에 실려있는 감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그것이 고려속요의 자유롭고 분방한 시풍에 분방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하는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주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어가고 싶다. 『처용가』와 같은 이런 성적 주제가 발달된 것은 어디에서인가? 그것은 『황조가와와』 같은 작품과 다른 대답을 요구한다. 본 장에서는 『천일야화』 및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중앙아시아의 서림 모티프에 초점을 맞추고, 처용가와 연계될 수 있는 문학적 맥락을 몇 가지 주목해보고자 한다.

논자는 한국의 시전통에 충격을 던진 『처용가』의 성적 모티프와 시적 정조, 내포 등이 『천일야화』의 전형대인 『천가지 이야기』로 귀착한다는 가정을 세워보고 있다. 『천일야화』의 텍스트 성립연대는 『처용가』보다 후대이지만, 그것이 오랜

10) 고려가요 성립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로는 김명준 <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이 있다. 발췌는 김명준 『악장가사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3

동안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구전되어온 ‘민담의 총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천일야화』보다는 그 이전의 전승 형태인 『천가지 이야기』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논자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천가지 이야기』를 확보할 수가 없어, 일단 『천일야화』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천일야화』의 방대한 이야기의 기원과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그 전형태는 『천 개의 이야기』이며, 인도 기원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믿어진다.¹¹⁾ 인도의 민담들이 이슬람 색채로 윤색되기 시작한 8세기는 『처용가』 발생기보다 대략 한 세기가 앞선 시점이다. 인도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불교와 관련지어 중국에 성지순례 열풍을 낳았던 곳으로, 우리도 그러한 열풍에 동참하여 ‘서역’ 등을 견문한 여행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인도의 문화는 이슬람교와 광범위하게 습합되어 ‘수피즘’의 전통을 낳는데, 이 수피즘은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전통의 중핵으로 『천일야화』의 문학적 분위기를 짙게 채색하고 있다.

이 『천일야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바그다드는 아랍인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인도인 등 가지각색의 인종과 문화, 종교가 뒤섞이는 범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압바스조의 바그다드는 풍부한 수자원과 인도무역의 유리한 중개지라는 지리적 자연적 조건 덕택에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제적 중심지로 발달되었다. 이 압바스 왕조는 몽골족이 바그다드를 함락(1258년)할 때까지 500여년간 존속하였는데, 압바스조의 역사는 두 시기로 구분된다. 정치, 문화적으로 번성하였던 시기로서 황금시대(750-1055)와 쇠퇴기인 은시대(1055-1258)이다(사회만 249). 이 시기는 『처용가』가 문화적으로 카니발화된 고려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압바스조의 문화와 혼용된 몽골족(원나라)의 문화가 고려에 광범위하게 흘러들어왔음은, 역사적/문화적/문학적으로 이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확증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처용의 문화와 동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천일야화』에 대한

11) 인도의 설화들이 6세기경 페르시아의 사산왕조에 전해져 『천가지 이야기』로 불려지다가 8세기 경에 아랍에 유입되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아랍, 이슬람적 색채로 강하게 윤색되어, 12세기 경부터 『천일야화』로 불리게 되었고, 12-17세기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전체 분량의 반 가량의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최종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애 152)

분석으로 들어가보자. 『천일야화』에서 전체들을 이루는 왕과 세라자드의 이야기는 밤의 무수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퍼즐상자와 같다.¹²⁾ 『천일야화』는 단순히 천이라는 밤들의 숫자나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위대한 이야기집이다. 장구한 구전의 과정을 거친 민속문학이 오랜 동안 수많은 창작자에 의해 민담으로 다시 만들어 전해지고,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추가된 다른 밤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수많은 문화를 위한 밤들이기도 하다. 당연히 『천일야화』에는 구비전승에서 나온 수많은 밤의 버전과 텍스트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원형이 훼손당한 채 수많은 지역의 이야기와 습합된 것이다. 공유된 전통텍스트가 단일하지 않기에 모티프 중심으로 요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천일야화』의 배경이나 장소는 매우 방대한데 여기서 『처용가』와 연관지어 주목해볼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관련성이 짙은 사마르칸트 Samarkand와 같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지역이다. 예컨대 이야기의 중심배경이 되는 샤리아르 왕의 사산왕조도 중국지역이며 『뽕추 이야기』에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언급되어 있다.¹³⁾(밑줄 필자) 『천일야화』는 지역에 따라 온갖 구비전승에서 나온 다양한 밤

12) 『천일야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통일성 있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책의 앞과 뒤에서, 혹은 가운데서 간간히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테두리 이야기가 존재하여 어느 정도 구조적인 통일성을 잡아주고 있다. 『천일야화』에서 ‘밤’이란 무수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셋트인 것이다. 『천일야화』의 가장 커다란 이야기 프레임은, 아내의 성적 배신에 상처입고 매일밤 처녀와 결혼하여 그를 죽이는 왕에게 시집간 세라자드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다. 매일밤 신방으로 들어온 처녀와 결혼하고, 여인의 배신을 막기 위해 처녀를 죽이는 잔혹한 왕에게 시집간 세라자드는 밤마다 무수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왕의 지혜로운 눈을 되찾게 하고, 결국 이로 인해 왕국의 처녀들의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재난은 끝나게 된다. 세라자드는 그녀의 어린 자매 디나자드 Dinarzad를 침실로 호출하여 매일밤 이야기 하나 해달라고 조르게 한다. 수많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설정 하에 퍼즐박스처럼 이 이야기 안에 연결되어 있다.

13) 『천일야화』의 배경은 크게 실존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실존의 세계 가운데는 이라크, 페르시아, 삼, 이집트, 메카, 메디나, 마그립, 안달루시아와 같은 이슬람국가와, 인도차이나, 중국과 같이 무슬림들과 상호관계를 맺었던 지역,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노아, 콘스탄티노플과 같이 무슬림들과 적대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있다. 상상의 세계에 속하는 도시는 ‘불멸의 삼’ 귀신들의 섬, 땅 밑의 세계, 바다 속, 알려지지 않은 장소 등과 같이 상상적인 혹은 전설적인 지명이 등장한다. 실존의 장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상의 장소는 인간 세계와 구별될 수 어떠한 어떠한 특징도 지니고 있지 않다. 단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 불과하다. (조희선 39-41)

의 버전과 텍스트로 다양하게 변주되지만, 대체적으로 천상과 지상, 영혼과 육체,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 통치자의 미덕이나 미술사, 마녀, 선악의 지니들(jinnis)과 관계된 신비로운 이야기, 섹스, 폭력, 신비로운 영혼의 요구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의 영향이 깊이 스며들어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처용가와 『천일야화』의 다층적인 접점에 대해 논자는 언젠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연구거리로 남겨둔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이 처용가의 기술물은 어딘지 『천일야화』와 흡사한 데가 있다는 점이다. 『처용가』의 정황은, 왕이 사냥을 나가자마자 검은 수옥의 화신과도 같은 흑인노예를 궁중뜨락으로 불러들인 왕비가 나오는 『천일야화』를 떠올리게 한다. 분노한 왕은 왕비를 살해하고, 매일밤 자신의 신방으로 들어온 처녀를 죽임으로써 보복한다. 하지만 달치녀와도 같은 세라자드는 남성의 슬픔과 분노를 위로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진실로 왕다운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섬뜩한 신비와 부조리, 그리고 영혼적 진실을 통찰하는 자일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아랍문화권에서 『천일야화』가 그러하듯 실제로 처용가의 에로틱한 묘사나, 애욕의 사고와 예술적 반응, 달밤의 이야기기는 설정, 기괴한 신비의 요소 등은 아랍의 문학정서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허혜정 2004 40-41)

『천일야화』의 이야기 프레임과 처용가 사이에는 단지 우연으로만 볼 수 없는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먼저 구성면에서, 『천일야화』의 첫 이야기인 『샤리아르 왕과 그 아우 이야기』는 아내의 성적 배신과 일탈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처용가』의 도입부와 완전히 일치한다. 담화적 차원에서 『천일야화』의 서술 형태를 보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산문과 시의 혼용, 대화체 등이 두드러지는데, 이것 또한 처용가와 『천일야화』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표현적인 차원에서 주목될 수 있는 것들은 무척 다양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왕과 처용의 관음증.¹⁴⁾ 여성의 부정한 섹스, 『천일야화』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여체의 묘사이다. 『처용가』가 “가라

14) 처용은 아마도 주홍에 취하여 아내를 놀려주려는 듯 살금살금 들어왔던 듯하다. 문을 여는 대신 장지문에 구멍을 뚫고 잠이 들었나 혹은 무엇을 하나 하며 초승달처럼 쨍그린 눈을 하고 엿보기를 했던 처용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다.

리 네히어라”라는 포르노그래픽한 묘사로 충격을 던졌듯이 “『천일야화』의 연애담에는 여성의 육체적인 묘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조희선 51)

좀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주목해보면 『천일야화』에서 육체는 놀랄 정도로 대담하며 세속적이면서도 동시에 숭엄한 내포를 동시에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용가』의 육체묘사에도 여러 층위의 문맥이 겹쳐져 있다. 특히 신과의 통정이라는 종교적/세속적 뉘앙스의 교차는 『천일야화』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특징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부에서, 성적으로 부조리한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의 신비와 진실을 알게 되는 존재로 주인공이 업그레이드된다는 점, 말(이야기)의 힘으로 재난을 축출하게 된다는 점 등이 유사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첫째, 모티프적인 차원에서 그 매개항을 지적해 보자. 무엇보다 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성적 일탈과 배신이라는 모티프는 한국의 문학사 속에서 새로운 문학적 모티프의 발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적 모티프가 등장한 적은 이전에 없었다. 그리고 이 삼각관계 모티프의 핵심은 “연인 뺏기와 빼앗기”이다. 『천일야화』와 처용가의 강력한 공유점인 삼각관계 모티프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진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대단히 암시적인 매개항이 존재한다. 이란-서역-중앙아시아-중국-한국이라는 연결선을 그려줄 수 있는 서림 이야기가 있다. 고대의 페르시아부터 이란, 중국의 신강(新疆)까지 이르는 비단길 위에는 일찍이 7,8 세기에 연인 뺏기/빼앗기 모티프와 관련된 미인 서림에 관한 전설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민간에 널리 전파되었다. 『파얼야미 역사』(巴爾亞米曆史)책에 의하면, 서림은 절세미녀이고 여종이다. 『왕서』 가운데에서도 미녀로 묘사되고 있다. 『왕서』 중 한편의 제목이 「휘쓰뤄와 서림」(確斯羅與西琳)이다. 「휘쓰더와 서림」과 「파얼하더와 서림」, 다시말해 페르시아의 서림과 위구르의 서림의 공통점은, 첫째, 이 두 작품의 인물이 절세미녀 서림으로 완전히 동일하고, 둘 다 휘쓰뤄와 파얼하더 이 두 남자주인공이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인물들의 이름도 같다. 두 번째는, 이 두 고사의 줄거리가 기본적으로 같고 둘 다 미녀에 대한 구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인 빼앗기/뺏기기 모티프이다. 삼각관계 모티

프가 대단히 보편적으로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 멀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대사가 사상 유일하게 『처용가』에만 남아있는 것이며, 연인을 빼앗고 빼앗기는 모티프는, 아랍의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의 『천일야화』나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서림이야기를 가로지르는 중추신경이다. 저자가 어디에 속해있는가에 상관없이, 『천일야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연인 빼기/빼앗기 모티프는 인도,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문명권, 중앙아시아, 중국 등의 장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둘째 주제적 차원에서 유사한 맥락을 짚어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천일야화』에는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로지르고 있다. 『천일야화』라는 이야기 세트는 처용의 부재를 틈탄 역신(疫神)의 침범처럼 남편의 부재에서 시작된 여성의 성적 배신이다. 그런 여자의 해명되지 않은 신비와 비밀을 찾아 무수한 이야기의 여행이 시작된다. 간략하게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인도와 중국의 섬들에 사산 왕조가 있어 그 나라의 왕은 두 왕자를 남겨놓고 붕어한다. 형인 사리아르가 왕위를 이어받고 동생 샤자만에게 사마르칸트를 다스리도록 한다. 이 둘은 아내에게 성적 배신을 당하는 고통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허무감을 달래려 왕궁을 떠나 방랑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처녀성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신이 납치한 여자와 만나게 된다. 그러나 마신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570여명의 남자에게서 성을 빼앗은 징표인 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남자에게도 자신과 동침하지 않으면 마신에게 알려겠다고 협박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일러준다.

가없게도 이 마신은 숙명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자라는 존재는 한 번 결심하면 남자가 제아무리 저지하려 해도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 사실이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말줄 필자)

여자를 의지하지 말라, 믿지를 말라
여자의 마음은 음탕하다네.
기쁨도 슬픔도 아랑곳 없고
오로지 성의 기교에만 탐닉한다네.

여자의 맹세는 부질없는 것
 끊임없이 돌아가는 입방아라네

.....

책망하지 말아요. 나리!
 화를 내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어요.
 나리께서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내게는 무서운 죄가 없어요.
 비록 이 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되고자 해도
 지금은 그 옛날의
 사랑하는 여자가 되고자 해도
 지금은 그 옛날의
 많은 여자가 경험했던
 음탕함은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경석 31-45)

위의 대목에서도 엇보이듯이, 여자는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는, 인생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그런 생의 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리석은 행위를 그만두게 된다는 설정이 되어 있다. 『천일야화』에는 “침대처럼 평평한 대지를 펼치신 분을 찬양할지이다”라고 서사가 달려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의 뜻이 실현되는 대지가 침대에 비유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침대로 암시되는 에로틱한 메시지가 곧 신의 뜻을 보여주는 매개라는 점에서 사뭇 종교적인 면을 읽을 수 있다. 즉 표현방식은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에로틱한 소재이지만 궁극적인 문학의 메시지는 우주적인 것이라는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이러한 우주적 메시지를 읽게 하는 통로로 안내하는 여성의 역할은 『천일야화』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남성이 밤 놀이를 갔을 때 달이 난 처용의 아내처럼 전체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주도권도 세라야드가 쥐고 있다. 여자의 성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행로는, 인간세계와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이해하는 왕의 선정으로의 회귀, 즉 재난의 물리침이라는 결론으로 이르고 있다. 여성의 성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세계와 우주적

진리를 매개하는 핵심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아내의 통정에 대한 처용의 반응이 축사적 의미로 해독되는 『처용가』의 전승맥락과 일치한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문제는, 두 개의 작품에서 여성이 우주적인 이야기의 실마리가 된다는 특이성이다. 여성주도적인, 혹은 존재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는 여성에 대한 숭배적 요소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쿠란 Qur'an의 텍스트 전통에 끼어들어온 인도의 영향같이 이슬람의 수피즘에 스며들어온 여성숭배 전통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뒷 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그 계보를 추적하자면 고대 근동지역에서 발생한 이슈타르 신앙, 인도의 사랑과 섹스에 대한 숭배 등이 이슬람교의 색채를 입고, 『천일야화』 속에 흡수되고, 그것이 ‘연인 뺨기/뺨앗기’ 모티프의 형태로 『처용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인물적인 차원에서 유사점을 논해보기로 한다. 아마도 『천일야화』나 처용가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우주의 인식을 매개하기 위해 어두운 존재의 출현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처용』의 전승텍스트들을 보면 역신과 처용의 갈등은 끝없이 반복되는 주제였으며, 특별히 인간적인 영웅과 처용과 마신적인 상징으로서의 역신, 그리고 한 여인이라는 삼각관계의 설정은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주제이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학적 모티프이다. 역신이라는 마적 존재와의 갈등구도로 놓여있는 『처용』 전승의 심층부에 놓인 것은 『천일야화』의 모티프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천일야화』의 ‘연인 뺨기 모티프’에서 중심이 되는 존재는 흑인노예, 때로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지니 등인데, 서림 모티프에서도 왕의 조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다인종이 섞여있던 아랍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냉혹하고 무자비한, 그러나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함께 천박함을 갖춘 존재들로 암시된다. 『처용가』에도 선볼리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가로놓여있다. 역신은 누구인가? 누가 진짜로 그 방에 왔었던가? 그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천일야화』라는 거울에 비추어볼 때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논자의 견해로 『천일야화』에서 부정한 섹스를 유발하는 ‘검은 노예’와 ‘나쁜 지니’(jinnis) 등은 역신의 이미지와 유사한 뉘앙스를 던져주는 듯 하다.¹⁵⁾ 그는 『천일야화』에서 여인을 감금하거나 약

탈하는 ‘검은 지니’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지니는 종교적인 신성의 빛깔인 ‘검은 색’을 하고 있으며 흑인노예 등으로 인간화되어 표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색조는 수피즘의 종교적인 위양스를 표현한다. 검은 노예나, 하얀 노예, 혹은 다양한 유색 인종으로 나타나는 노예들, 지니의 신비로운 빛깔은 이슬람의 수피교의 상징인데, 수피교에서 검은 빛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에머랄드빛 다음으로 신성한 빛깔이다. 비록 현재로서 실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용이 보다 더 상위의 푸른 빛(바다의 아들)을 상징한다면 역신은 그 정조상 검은 빛과 연계되는 것은 아닐까 짐작해본다.

이러한 수피적 요소는, 실제로 『처용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성희적 주제를 무슬림 수피 시인들의 작품과 비교해볼 때 더욱 설득력 있는 연관성을 도출시킨다. 실제로 무슬림 수피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나 수피전통 속에는 처용가와 유사한 요소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들의 시의 “중심테마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인간과 사랑이며 이야기 속에 다양한 인간들이 상징적인 존재로서 나타내어진다.”(노영자 61) 삼각관계 모티프는 이들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특성인데, 예컨대 쿠트반(kutban)의 시 『무리가와띠』(*Murigavati*)는 무리가와띠 공주를 둘러싼 왕자의 모험담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작품에는 “신비적인 암시”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신비적인 함축과 함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사랑의 이야기로 길게 구체화된 마두 말띠(Madhu Malti)의 사랑 만주한에 관한 것도 수피의 상징적인 은유가 잘 암시되어 있다(노영자 61-62)”. 다양한 수피 무슬림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와 복잡한 관계”(노영자 61-67)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둘러싼 사랑의 추종자들과 주인공의 관계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지만, 삼각관계 모티프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논자의 판단으로 『처용가』의 삼각관계 모티프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중국을 타고 느리게 동진해온 “연인 뺨기/빼앗기” 모티

15) 『천일야화』에서 노예 혹은 지니는 다양한 유색인종으로 나타난다. 지니의 신비로운 빛깔은 이슬람의 수피교의 상징이다. 수피교는 검은 빛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에머랄드빛 다음으로 신성한 빛깔로 여긴다. 역사적으로 무슬림에서는 흑인노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흑인은 단순히 주인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아니다. 논자는 어두운 신성을 매개하는 역신을 지니 혹은 흑인노예의 의미와 관련지어보고 있는데, 그것이 달의 원형과 통하는 천연두의 역신으로 변용생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프의 한 변형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문학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인 차원에서 ‘처용’과 수피즘과의 연관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4. 처용 문화와 수피즘

『처용가』의 성적 메시지는 윤리적 위반이나 사회적 판단의 수준을 넘어서, 제 난의 축출이라는 우주적 인식으로 전이되는데, 이에 대해 ‘벽사진경’의 의례로 전이된 처용문화는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양한 해석의 통로가 가능하겠지만 주목되는 것은, 벽사진경의 의례로 실현되었던 처용무에서 유달리 강조되는 처용의 복색이다. 처용무 복색은 대단히 특별한 성적 암시를 던지고 있는데 관계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모에는 가면 및 목단화, 도실(복숭아), 도지(복숭아 가지), 이환(귀거리)를 첨부한다. 사모는 대나무로 망을 짜서 만든다. 어느 제도(制度)와 같이 종이를 바르고 채색하고 꽃을 그린다. 가면은 가목(유자나무)를 조각하여 만든다. 혹은 칠포(웅칠한 배)로 각(껍데기)을 만들어서 채색하여 만들고 양귀에는 석환(주석으로 만든 귀거리)에 랍주(납 구슬)을 단다. 모상(상모 위)에는 목단화와 도지를 꼽는다. 목단꽃과 가지는 세저포(고운 배)로 만들고 도실(복숭아 열매)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천의(天衣)는 녹가(녹색비단)으로 만들어 만화(덩굴꽃)를 그리고 안에는 홍주(홍색 명주)를 쓴다(오방이 모두 같다). (이홍구 221-2)

처용의 복색은 마치 대지의 치마폭에 점점이 떨어진 꽃들의 잔치처럼 복숭아꽃, 덩굴꽃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사모에서 장신구인 귀걸이까지 매우 여성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처용무의 복색은 흔히 성적인 은유로 이해되는 ‘도화’ 장식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이고 대지(여성)지향적 특성은 대단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특성이란 판단되는데, 논자는 일찍이 달이라는 상징을 매개로, 『처용가』가 아랍,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지숭배전통과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처용가』에 관여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아랍의 달신앙의 모태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지신앙이며, 그것은 광범위하게 여체에 대한 숭배, 성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의 문학에서 당연히 사랑이 가장 강력한 시적 주제로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여신)숭배 전통과 같이하는 것으로 논자는, 이전에 발표한 『처용가』(處容歌)를 통해 본 달의 에로티즘 연구』를 통해, 처용의 문학적 메시지가 아랍의 후별신앙, 그리고 더 멀리는 근동지역의 여신숭배 전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허혜정 1)

여기서 고려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었던 서역의 문화를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역은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를 가리키나 사실은, 서쪽의 지역 즉 소아시아의 문명권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역에 인류 문화의 기원인 수메르가 있고, 수메르의 문화는 전세계 신화, 문학에 영향을 준다. 일례로는 길가메시(Gilgamesh)가 있다. 이러한 수메르의 시가류는 동으로는 당, 송, 원, 한반도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의 끝자락인 이베리아 반도의 남단에 이른다. 잘 알려져 있듯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의 고대 서사시에 드러나는 여성화자의 심리적인 원형은 ‘대지’의 여신 이슈타르(Ishtar)¹⁶⁾인데, 그녀는 우주적 영혼의 신부이며, 풍요의 근원인 대지로 표상된다. 다양한 창세 신화 모티프에서 발견되듯 생명의 근원은 우주의 신들에게 탄생을 주는 첫 엄마의 자궁이다. 그녀는 배우자 없는 신이다.¹⁷⁾ 이슈타르 신앙으로 대표되는 근동지역의 여신숭배는 신화적 우주론의 첫 메타포이기도 하다. 기원의 신화에는, ‘태극’, ‘혼돈’, ‘일자(一者)’, ‘알’, ‘물병’과 같은 자궁이 있다. 그것에서 나온 신화적 한 쌍이라는 이항대립의 관념이 발생하기 전의 우주론적 성의 판타즘을 잘 요약한다.

만약 논자의 주장대로 수메르 지역의 여신신앙이 수피즘이라는 매개를 거쳐 처용 텍스트에 영향을 주었다면, 처용의 아내의 역할도 새로이 주목해볼 수 있다. 여자의 생물학적 권력은 처용에게는 파괴적인 운명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우주적 인식을 가능케 한 매개가 된다. 이러한 우주, 대지, 육체에 깃든 신성으로 이르기

16) 바빌로니아의 여신 이슈타르의 시적인 신화는 고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가나안(Canaan), 그리고 아나톨리아(Anatolia)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숭배적인 대한 유전계보를 가지고 있다.

17) 그것은 엄마 대지의 자궁, 대지의 갈라진 음부에서 일어난 신화적 상상력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Gwendolyn 13).

위한 어두운 통로는 『천일야화』와 『처용가』에 동시에 등장하는 성적 아노미, 즉 부정한 섹스라는 모티프를 통해 열리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될 수 있는 것은 수메르나 바빌로니아의 전승시들이 신성과 세속의 대위법적 시간을 매음굴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섹스는 궁극적으로 창녀적인 에너지를 행사하는 대지적 권력의 표현이다. 고대의 매춘부는 대지적인 여신들의 신전에 거주하는 성녀였다. 그들은 신성한 신부이며 창녀였다. 『천일야화』와 『처용가』의 부정한 여인들은, 신성을 감춘 육체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비밀로 안내하는 강력한 실마리이며, 처용의 춤은, 이 여성의 비밀, 끝내 자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의 대지의 속성,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여성적 속성을 복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거칠게 말한다면, 『천일야화』나 『처용가』에 나타나는 성적 메타포는 우주론적 인식의 표현이다.

간략히 말해, 첫째 처용문화에서 강조되는 성적 메시지의 본질은 대지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처용 아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조를 통해 표현된다. 둘째는 이것이 처용 카니발의 의례에서 특별히 대지적이고 여성적인 요소가 강조된 복색으로 표현된다. 처용무가 가진 깊은 의미는 결혼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슈타르 숭배 전통, 그리고 『천일야화』의 발생지역인 인도의 민간신앙과 이슬람교의 습합 속에 탄생한 수피즘을 고려할 때 잘 해명이 되리라 여겨진다. 그 맥락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하다, 역사적으로 이슈타르 신앙은 이슬람교와 깊이 습합되는데, 예컨대 다양한 여신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카바의 후별숭배와, 근동의 성지순례를 마친 하지(hajji)의 전통은 바로 대지신앙과 이슬람교의 접점을 보여준다. 이슬람교는 동쪽의 힌두교의 전통도 깊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힌두교에서 숭배하는 신성한 육체숭배 전통은 무슬림들이 메카(Mecca)나 메디나(Medina)를 순례하며 대지에 입맞추는 의식, 혹은 성지순례의 전통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슬람교의 대지숭배적 요소, 땅에 대한 특별한 애착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광범위하게 ‘페르시아’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근동지역의 혼합종교를 대표하는 수피즘의 전통은 처용가와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논자의 주장을 미리 아울러 말한다면, 처용은 수피승이다.

수피즘은 근동지역의 대지(이슈타르)신앙, 인도의 힌두이즘을 혼합한 특별한 종교전통으로, 『천일야화』의 발원지가 되는 인도의 힌두이즘에 의하면, 우주적 진리는 육체에 새겨져 있다. 예컨대 요가에서 역설하는 바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배꼽과 ‘요나’이다. 우주의 중심은 섹스의 중심이다. 그것은 우주를 생물학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사고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여성숭배, 대지신앙적 요소는 처용가의 에로틱한 정조나 처용의례의 복식에서도 광범위하게 유추될 수 있는데, 우주를 품어내는 영적인 섹스 드라마는, 거대한 자궁을 가진 여인, 대지적 육체로 암시된다. 거대한 자궁(궁창, 혼돈, 태극)에서 흘러나온 물은, 세계를 탄생케 하는 정액이고, 양수이고, 풍요의 씨앗이다. 섹스는 운명의 법령이다. 하늘과 땅, 첫 커플의 섹스는, 언제나 서로의 물을 섞는 것으로 은유된다. 남성의 물(정액)은 탄생을 예비하는 대지의 육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¹⁸⁾ 바다용왕의 아들인 처용은, 바로 근원의 씨앗이 되는 물의 아들이며, 그러한 우주질서의 한 표현으로 처용의 복색은 오방색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처용이 용의 아들이라는 신화, 그리고 유덕하고 지혜로운 언어로 상징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메르 지역의 서사시에 나타나는 창조설화에 의하면 태초엔 물이 있었으며, 성서에서도 궁창이란 비유가 등장한다. 『천일야화』의 발원지인 인도에서도 코끼리에 의해 상징되는 물은 가장 큰 지혜인 왕의 지위를 차지한다. 여신 마야(Maya)는 하얀 코끼리가 자궁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다. 여자의 자궁은 삶과 풍요의 근원인 물(지혜)을 흘러넘치게 한다. 문명발생기의 신성은 하늘 또는 대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물에 있다.¹⁹⁾ 지혜는, 구슬(언어)로 상징되며, 처용의례의 복색에는 이러한 구슬이 중요한 장식물로 여겨지고 있다. 용이 문 구슬(물방울, 여의주)은 지혜의 말을 상징하며, 특히 처용은 용의 아들로 표현되었음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심층적인 의미들을 고려해볼 때, 처용의

18) 가령, 수메루인의 텍스트에서 보면, 남성의 정액은 탄생의 자궁에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신 엔키(Enki)에 의해 포고된 운명의 법령이다. 바벨로니인들의 텍스트 속에서 보면, 인간의 탄생이 살해된 신의 신성한 피에서 비롯되었다는 상상력 또한 여성의 창조적 신성과 결부된 재생산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임신과 분만의 제의적 측면에 대한 집중은 여러 문서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정액은 생명을 창조하는 물이다. (Gwendolyn 28)

19) 이것은 노자가 ‘물’로 비유한 지혜의 근원에 대한 사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춤은, 성적인 제의를 통해 스스로를 재생시킬 대지의 신성함을 높이는 의례가 아닌가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물의 아들인 처용, 달밤의 춤을 추는 처용이 여성지향적이고 대지적인 상징들과 결합된다는 것은 도화, 덩굴꽃 등으로 장식된 처용의례의 복색으로 암시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수피즘에서 대단히 중요한 종교적 요소로 강조되는 춤의 의미이다. 근동지역의 대지숭배적인 민간신앙과 인도의 신비주의 전통을 폭넓게 흡수하며 형성된 수피즘은 정통 이슬람교와 다른 바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바로 춤이다. 수피즘은 우주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즉신성과 일체가 되기 위한 영혼의 수행으로 신성한 움직임과 춤을 강조한다. 이것은 황홀의 경지에 들기 위한 ‘대지의 춤’이라는 토착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Zikr라 불리는 기도문구와 함께 한다.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처용의 ‘노래와 춤’이다. 수피들의 춤은 “빙빙 도는 춤”(Whirling Dance)로 알려진, 즉 영혼의 우주적 질서인 소용돌이를 강조한다. 영혼의 혼련으로 빙빙돌기 수행을 했던 수도사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빙빙 돌기는 바로 처용무의 중요한 동작으로, 1910년 수피즘을 인도에서 서구에 가져왔던 음악가 칸(Hazrat Inayat Khan)에 의하면 수피의 춤은 모든 인간과 종교에 사랑과 조화,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우주적 메시지를 표현한다.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sharonmijares/ruha.htm>) 열정적으로 도는 춤으로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고, 소용돌이 춤(whirling dances)으로 알라에 집중된 상태로 춤추는 자의 의식을 던져넣게 한다.(Martin 85) 마틴 링스(Martin Lings)는 “육체는 우주의 축을 상징한다. 그것은 생명수(Tree of Life) 외에 다른 아니다. 춤은 몰입의 의식이며 잃어버린 중심을 맞보는 것이다.”(Martin 84) 이러한 나무에 대한 숭배는 쿠란에서 올리브나무로 나타나지만 처용의 문화에선 복숭아 대나무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다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고려가요 『처용』에 나타나는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다.

처용아비를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
많이도 많이도 세워놓았구나!

십이 제국이
 모두 만들어 세워
 아! 처용아비를 많이도 세워놓았구나!
 버찌아 오얏아 녹리야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어라
 아니 곧 맨다면
 곳은 말 떨어지리라
 동경 밝은 달 아래
 밤새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내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구나!
 아!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뉘 것인가

(고려 『처용가』 부분 임기중 역)

위의 노래는 “처용아비를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많이도 많이도 세워놓았구나!”라고 찬탄하며 “십이 제국이/모두 만들어 세워”놓았다고 노래한다. 마치 인간의 육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이 빚어 세워놓은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해되기 쉽지 않은 구절은 바로 “버찌아 오얏아 녹리야/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어라”라는 구절이다. 갑자기 나무이름을 사람처럼 호명하고 있다. 이것이 마틴 링스의 주장처럼 “육체는 우주의 축을 상징한다. 그것은 생명수(Tree of Life)”라는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무더러 신코를 매리는 넌센스는 인간육체와 나무를 동격에 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구절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가랑이가 넷이로구나!”는 에로틱한 구절을, 앞 구절과 의미의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놓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처용아비가 나무와 동격으로 의미가 전이되고, 성적인 은유가 식물성과 연관되어 있는 심층적 맥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것은 처용무의 복색에서 암시되는 바와 같이 대지적 의례의 시적 표현이 아닌가 한다. 즉 “격양된 사랑의 열광 안에서” 신성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피적 의례를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²⁰⁾

20) 수피들은 자아와 우주 사이의 근본적인 일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자아와 우주 즉 인간과 신의 관계를 합리적, 이성적인 면에서가 아닌 감성적인 면에서 일체감을 갖도록 하였다. 그들이 도달하고자 한 목표는 신의 사랑만큼 격양된 사랑의 열광 안에서 그리고 절대

수피즘과 처용의 문화를 더욱 세밀하게 연관시켜볼 수 있는 또다른 맥락은 ‘동작’이다. “수피의 춤은 육체의 리듬미결한 상승 하강의 움직임에 엄격하다(Martin 85)” 이러한 수피의 춤은 처용무의 동작과 상당히 유사한 바가 있다. 관계 문헌을 보면 “음악이 중엽에 이르러 장고가 채편을 치면 처용 5인이 다같이 허리를 구부리며 모두 두 팔을 들었다가 내려 무릎 위에 놓는다”는 식의 상하동작과 ‘회무’(回舞), ‘주산’(周旋) 등 돌기동작이 전체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는 수피댄스와 상당히 유관한 동작들인데, 관계 문헌의 일부를 보기로 하자.

신라 처용은 칠보를 띠고, 꽃가지 머리 누르고 향기로운 이슬 떨어지네. 긴 소매 낮게 돌려 태평을 춤추니, 취한 뺨 타는 듯 붉어 아직 술이 덜개였네.²¹⁾ (『목은집』 권21 구나행)(밑줄 필자)

동대문에서 쫓문 앞까지 산대잡극이 펼쳐졌는데 예전에는 본적이 없었다. 산대는 만들어 놓은 모양이 봉래산 같고 과일 바치는 선인은 해상에서 왔네. 잡객의 북과 징소리 땅을 뒤흔들고 처용 아바 소매는 바람따라 도네. 장간의한은 평지처럼 벌여 있고 포화는 하늘을 찢러 빠른 번개같은데 태평시대 참 기상 그리고자해도 노신의 잠필로는 제주없음이 부끄럽기만 하네.²²⁾ (『목은집』 권33)(밑줄 필자)

위의 인용문들은 처용의례가 ‘꽃가지’ ‘과일’ 등의 대지적 요소를 질게 가지고 있으며, 처용무에 있어서도 ‘도네’ 동작이 중요함을 거듭 암시해주고 있다. 수피즘에서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황홀이다. 하늘과 대지를 이어주는 수피즘의 춤은, 바로 처용의 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인간을 완성으로 고양시키는 것, 대지와 하늘이 분리되지 않고 춤 안에 통합되는 것은 바로 수피댄스와 처용무의 공통된 특색이다. 정신의 대응물로 옷을 강조하고, 신성이 깃든

자의 사랑과 떨어지거나 절대자의 실재가 다른 그들의 존재인식을 잃어버리는 자기방종, 포기 안에서, 격정적으로 감성적인 도달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아소멸의 분위기인 -수피주의는 승배유형과 철학의 한 분파로서, 철학 승배 두 가지의 진실로 매혹적인 면을 소유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주의를 끌려고 하였다. (노영자 67)

- 21) 新羅處容帶七寶 花枝壓頭香露零 低回長袖舞太平 醉臉爛赤猶未醒 (『牧隱集』 卷21 驅離行)
 22) 山臺結綴似蓬萊 獻客仙人海上來 雜客鼓鉦轟地動 處容衫袖逐風迴 長竿倚漢如平地 瀑火衝天似疾雷 欲寫大平真氣像 老臣簪筆愧非才 (『牧隱集』 卷33 自東大門至關門前山臺雜劇前所未見也)

육체를 강조하는 수피즘의 폭넓은 맥락을 보면 처용은 바로 수피승인 것이다.

수피즘은 알라와 함께 되길 추구하는 방편으로 sf라 불리는 조악한 옷을 입는 법을 채택한 바, 수피즘은 바로 sf라는 의미에서 온 것이다. 즉 sf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신비로운 일체를 믿는 모든 무슬림들의 소망을 나타낸다. 수피 철학은 불교와 연합되면서, 악으로부터 영혼을 깨끗이 하여 니르바나에 이르고자 하는 중요한 방편인 금욕적 실행(ascetic practices)으로 변화한다.²³⁾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신성으로 고양되기 위한 육체의 의례, 그 하나의 방편으로 강조되는 옷의 의미는, 처용의례에서 특별히 엄격하게 규정된 복색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외에도 수피즘과 불교의 연관성이나, 육체와 여성에 대한 특별한 해석, 미에 대한 숭배, 어두운 마적 존재 등을 염두에 두고 보면, 처용의 문화 속에 중국을 경유한 아랍문화의 영향이 깊이 스며들어있다는 것, 특히 『천일야화』와 문학적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은 무리가 아니라 여겨진다.

5. 결론

『처용가』의 가장 빛나는 문학적 면모들은, 한국의 문학적 문맥 속에서만 짚어질 수 없는 의미들의 ‘결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논자는 처용가의 문화적 맥락과 특성을 짚어보기 위해 아시아권이라는 문화권역의 관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본 논문은 『천일야화』를 비롯하여 그것을 매개하는 ‘비단길’

23) 수피즘은 또한 율페즘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미에 대한 숭배, 수피즘 자체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환영, 축복의 엑스타시, 신성의 감각, 존재감과 감각이 무화되는 경지, 공(空 nothingness)의 경지 등은 처용가를 가로지르는 정서와 유사한 요소를 가진다. 수피즘은 범신론적 pantheistic 사유 속에서 창조를 설명한다. 수피즘은 영혼은 어떤 단계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될 수 있다. 영혼은 정열, 욕망, 감각적 욕망, 소망으로부터 정화되는 과정으로 고양된다. 자연의 신성 때문에, 영혼은 불멸이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존재로 퇴화할 수도 있다. 영혼은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그 자체에 대한 지식에 의해 광희로 고양된다. 존재의 이해는 사랑에 의해 가능해진다. 사랑은 신의 현현이며, 사랑에 의해 특별한 우주적 지식을 성취할 수 있다. (Godelek <http://www.bu.edu/wcp/Papers/Comp/CompGode.htm>)

에 유포되어 있는 삼각관계 모티프와 그와 연관된 수피즘의 전통을 『처용가』 및 그 문화와 비교하여 주목해보았다.

본 논문은 『처용가』에서 연인 뺏기/빼앗기로 나타나는 삼각관계 모티프나, 위 반적인 성적 일탈의 여성, 마적이고 신비로운 역신의 존재는, 아랍문화와의 만남 속에 생성된 미의식의 총체적 구현일 수 있으며 문화적 간섭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내포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거칠게나마 기술해보았다. 특히 성적 일탈과 배신, 인간의 심성과 욕망에 대한 통찰, 마적인 존재의 등장, 에로틱한 사고를 매개로 인간의 자연성에 대한 통찰로 이르는 주인공 등, 『처용가』와 『천일야화』의 메시지를 짚는 질은 상관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준다. 비록 현재로서 실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용의 문화는 근동지역의 대지(여체)숭배로 소급되는 수피즘적 요소를 짙게 함유하고 있으며, 처용은 신성에 이르기 위한 춤의 수행을 강조하는 수피승이라는 점도 소략하게 주장해보았다. 문학적 모티프 뿐 아니라 복색, 음악, 무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대중을 매혹하는 당대의 문화코드가 되었던 처용 문화의 발단은,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음악, 비디오와 같은 상품 등을 통해 급진적인 문화적 실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대처럼 일종의 문화충격현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하다.

처용이라는 매력적인 바다의 아들이, 오래 전에 음주가무를 즐기던 동이족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듯, 오늘날에도 처용은 상상 속의 우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인간의 심원한 우주적 인식과 다양한 인격의 등가물로 재현되는 처용 문화의 다층성은 한국문학/문화사 전체를 통해 보아도, 다른 문학작품에서는 파생되기 힘든 독특한 구조이다. 이러한 의미의 다층성은 역설적으로 처용문화의 연속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속성이며, 아시아 문화라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얻어진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 본 논문 전체가 깔고 있는 주장이다.

주제어

처용가, 천일야화, 실크로드, 수피즘, 처용무, 이슈타르

인용 문헌

- 김명준. 『고려속요집성』. 다운샘, 2002.
- _____. 『악장가사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_____. 『악장가사의 성립과 소재 작품의 전승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
- 김원경. 「처용가의 변천과 Shamanism에 대한 연구-특히 처용가의 설화성과 민속 신앙을 중심으로」. 『논문집』 3. 서울교대, 1970.
- 박노준. 「고려처용가의 형성 과정」.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 박장순. 『문화콘텐츠 해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 빙심, 동내빈, 전리군 지음. 김태민 외 3인 옮김. 『중국문학 오천년』. 예담 2000.
- 사회만. 『아랍의 언어와 문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성근. 「고려속요 어음형성의 무속적 배경」. 『어문교육논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82.
- 이승훈 엮음. 『한국현대 대표시론』. 태학사, 2000.
- 이용범. 「처용설화의 고찰-당대 이슬람상인과 신라」. 『진단학보』 32. 진단학회, 1969 ; 『대동문화연구』 별집 1. 성균관대, 1972; 『항가연구』 국문학논문선. 민중서관, 1977.
- 이흥구. 『처용무』. 화산문화, 2000.
- 임기중. 「처용노래와 그 이야기의 변신모티브」. 『문학과 비평』 5. 1988.
- _____. 「처용가의 변신모티브」.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 출판부, 1992.
- 이희수. 『한· 이슬람교류사』. 문덕사, 1991.
- 이븐 바투타. 정수일 역. 『이븐바투타 여행기』. 창작과비평사, 2001.
- 정덕본. 『삼국유사』. 리상호 번역. 고전연구실, 과학원 출판사. 1960.
- 정수일. 『新羅·西域交流史』.檀國大學校出版部, 1992.
- _____. 『문명교류사 연구』. 사계절, 2002.
- _____.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 _____. 『실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2001.
- _____. 『이슬람 문명』. 창작과비평사, 2002.
-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05.
- 조희선. 『아랍문학의 이해』. 명지출판사. 1999.
- 최성호.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배경과 사상을 중심으로』. 1984.
- 하태석. 「무가계 고려속요의 성격 연구」. 『어문논집』 43집. 민족어문학회, 2001.
- 허룡구. 「양태사의 시가에서 본 발해문화의 일각」. 『한중문학비교연구』 (허호일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국학자료원. 1997.
- 허혜정. 「‘처용가處容歌’를 통해 본 달의 에로티즘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제 10호, 2004.
- _____.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콘텐츠」. 『현대문학의 연구』 28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람 아와드 디웨디. 노영자 역. 『힌디문학의 이해』. PUFs. 2001.
- 폴 펠리오. 「중앙아시아에서의 3년」. 「기록과 증언」. 『실크로드』. 시공디스커버리 총서, 004. 시공사 1995.
- Burckhardt, Titus. *An Introduction to Sufism*. Wellingborough: The Aquarian Press, 1990.
- G. J. O. Moshay. *Who Is This Allah?*. Bucks, UK: Dorchester House, 1994.
- Leick, Gwendolyn. *Sex and Eroticism in Mesopotamian Literature*. London: Routledge, 1994.
- Lings, Martin. *What is Suf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5.
- Morey, Robert. *The Islamic Invasion: Confronting the World's Fastest Growing Religion*. Las Vegas, Nevada: Christian Scholars Press, 1992.
- Nasr, Seyyed Hossein. *Sufi Essay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2.
- Rastogi, Tara Charan. *Islamic Mysticism - Sufism*.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rivate Ltd., 1982.

Richar Francis Burton. 이경석 옮김. 『아라비안 나이트』. 홍신문화사, 2005.

Rippin, Andrew. *Muslim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New York: Routledge, 1990.

Van Ess, John. *Meet the Arab*. New York: The John Day Co.1943 “Sufism & Dance”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sharonmijares/ruha.htm>

Godelek, Kamuran. “The Neoplatonist Roots of Sufi hilosophy”.
<http://www.bu.edu/wcp/Papers/Comp/CompGode.htm>

Abstract*The Arabian Nights*, the Silk Road, and the Culture of ‘Cheoyongga’

Huh, Hye-jung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the culture represented in ‘Cheoyongga’ and the tradition of Sufism and love affairs described in *the Arabian Nights*. These two literary works seem to have the same motif, that is, a love affair between three persons. Both works have a same geographical background, Asia. The Silk Road, I think, was used to convey literary trends, I think.

This thought has basis on the fact that the same motif is dealt in lots of literary works found along the Silk Road. The tradition of Sufism is closely related with the motif of the works too. In ‘Cheoyongga,’ the adulterous love affair is described as an act of evil spirit and the protagonist dances when he sees the sight. This seems to be affected by the Arabic culture. In *the Arabian Nights*, we see almost the same love affairs, in which the sexual betrayal is uses as a means to show the human nature.

Though it is very hard to find evidences to prov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ks, we can safely say that the culture of ‘Cheoyongga’ holds the Sufic factor, and that the worship of the earth (the body of woman) in the region of Near East holds the same Sufic factor.

In some respects, Cheoyong can be thought as a Sufic monk who emphasizes the ascetic practice of ‘dancing’ to reach divinity. As Cheoyong was welcomed by the Dongee race as an attractive son of the sea long time ago, so he is adored as an imaginative idol at present. This is why we can see the culture in ‘Cheoyongga’ as a reproduction of profound cosmic awareness and an

equivalent of diversified personality. As no other works which have similar motif are found in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we can surmise this unique structure is closely related with the *Arabian Nights* by way of the Silk Road.

Key Words

‘Cheoyongga’, *The Arabian Nights*, the Silk Road, Sufism, Cheoyong-Moo, Ishtar

허혜정

동국대 계약교수 / 국문학(현대시)

octopusink@hanmail.net

접수연월일: 2006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